



썰 도안가 이복식 그림과 함께한 30년

글_박연숙(본지기자)

한국 최초의 우주인 그리고 한국의 우주과학 기술을 주제로 한 올해의 썰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도안 소재 선정, 도안가 섭외, 그리고 그림이 완성되어 인쇄가 되기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특히 한국의 우주과학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썰 한 장에 담아야했던 올해의 썰은 도안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도안을 맡은 이복식 선생은 국내 유수의 광고 일러스트를 그렸으며 우표원화를 그리기도 했던 작가로, 마치 사진을 보는 듯 섬세한 필치로 하나하나 완성해나간 그림이 특징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극사실화로 분류하기도 한다.

“처음엔 소우즈 우주선을 스케치했는데, 한 장 한 장에 의미를 담아야 하는 썰의 특성상 다시 로켓, 위성 등을 담은 현재의 구도로 변경됐어요, 썰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복잡한 기계의 요소들까지 손으로 그린 겁니다. 꼬박 2개월간 썰 원화를 그리는 데만 매달렸어요.” 원화에서는 좀 더 세심한 부분들까지 표현됐는데, 썰 한 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그에 맞춰 축소된 것이 아까울 정도다.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이복식 선생은 30년 넘게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분유, 라면, 조미료, 기름, 제습제, 음료, 통조림……. 누군가 슈퍼마켓에 가서 생필품 몇 가지 사들고 왔다고 치자. 그 중에 한두 가지는 그의 작품이지 싶을 정도다.

그가 광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 교사가 되기 위해 순위고사를 치렀는데, 첫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후 아는 분의 권유로 제일기획 입사시험을 치르게 되었다고.

그가 입사한 해가 1974년. 그 후 4년간 수많은 광고원화를 그린 후 독립했다. 독립 후에는 광고 이외에 월간조선, 음악동아 등의 표지를 그리기도 했다.

“광고도 매력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월간지 표지 작업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광고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제품을 사도록 하는 그림이니까 내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반해, 월간지는 내 생각이 들어간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광고는 상품화됐을 때 제품이 잘 팔리는지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요. 잘 안 팔리면 어느 정도 내 탓도 있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하고, 잘 팔린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요.”

일일이 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릴 수 있는 작품 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줄잡아 일년에 40편 정도를 그리는데, 지금까지 980여 점 정도를 그린 것 같다고 말한다. 또 그의 작업실에는 견습생도 두지 않았다. 모든 자료를 혼자 모으고, 혼자 그린다.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작업을 하니까 작업량이 많지만 난 그렇지 못해요. 배워볼까도 했지만, 그럼 내 스타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어요. 편리는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아날로그적인 내 방식이 마음 편해요.”

향후 계획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년 즈음 전시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광고미술의 산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외길 30년. 차곡차곡 쌓아온 그의 스크랩북을 펼쳐놓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미술관이 될 것 같다.

끝으로 기자에게 한마디를 남긴다.

“도안이 잘 돼서 크리스마스 썰이 잘 팔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



이복식 선생이 직접 그린 제품 포장들